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기성복 맞음새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s and Wearing Sensation of Women's Ready-to-wear

이영주* · 김점해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Young Ju Lee* · Jeam Hae Kim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behaviors and wearing sensation of ready-to-wear of the elderly woman who residing in the Pusan and Kimhae. The subjects were elderly woman who assessed the wearing sensation of slacks, jacket 1(1-2button), jacket 2(over 4button), and jump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analysis of the clothing behaviors factors, the factor 1 was the concern about the appearance, the factor 2 was mental dependency about the clothes, the factor 3 was the satisfaction about the clothes and the factor 4 was the concern about the fashion.
 2. As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the slacks, waist and thigh of the slacks was large and slacks length and crotch length was long. As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the jacket 1, over the age of 70 years was more satisfied than under the age of 70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bust, waist, hip, and sleeve length.
- As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the jacket 2, under the age of 70 years was more satisfied than over the age of 70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sleeve length and location of the armhole.
- As for the wearing sensation of the jumper, the are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waist. Jumper was larger than jacket.

Key Words : elderly woman, clothing behaviors, wearing sensation, ready-to-wear, clothing purchase behavior.

I. 서론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였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4년도에 전국의 군 3곳 가운데 1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통계청자료).

노인인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연장,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지적,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일선에서 물러난 단순한 늙은 이가 아닌 생활의욕 및 자기만의 감각을 가지고 소비하려는 경향을 가진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량의 장을 보는 노인 가구의 급증으로 동네 구멍가게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대형유통업계들은 소규모 소매점으로 다각화할 채비를 하는 등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07.07). 우리나라의 생활실버박람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화 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IT기술을 접목 시킨 실버제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노인전용 단말기를 최근 출시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노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디지털타임스 2005.09.30). 중국은 이미 20세기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용품 시장수요는 4000억위엔(元) 규모이며 오는 2010년에는 1조 위엔(元)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1회 중국 노인용품 박람회'가 2006년 1월에 개최되어 세계 500개 기

* Corresponding author: Young Ju Lee
Tel: 051) 620-4667
E-mail: young99@ks.ac.kr

업들이 참가하는 등 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中國經濟時報). 이러한 노인들의 소비성은 잠재시장으로 부상되고 있어 전 세계의 업체들은 노인의 욕구와 선호에 맞도록 많은 노력과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노인의 연령과 심리적 연령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의 나이보다 젊게 느끼거나 더 나이든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젊게 느낀다는 것은 젊어보이게 노력하고 젊게 행동하려는 동기가 되며, 의복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김진구, 1996).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의복이나 유행에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은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하여 노후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및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이나 자아개념의 재학립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자아 이미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의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의복행동 및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김영애, 1991; 김병미, 1994; 허갑섬, 1993; 추태귀, 1995; 남윤자외1인, 1997; 여혜린외 1인, 2005),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서미아외 1인, 1995; 김진구, 1996; 배현숙, 1999; 유경숙, 2000),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홍병숙, 1996; 이민정, 1996; 채진미, 1997; 금혜령, 1999, 강윤자외1인, 1998; 박은주외 1인, 2005)에 대한 것들이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베이비붐세대가 60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문화와 접하였으며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집단으로 풍부한 의복 착용 경험과 감각으로 의생활을 영위해 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현재 착용하고 있는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해 연구해 봄으로써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전략수립 및 체형의 변화가 심한 노인여성들을 위한 맞음새가 뛰어난 기성복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지역에 따른 연령분포

연구대상의 지역에 따른 연령분포는 <표 1>과 같다. 남윤자외 1인(1998)의 연구에서 의복비 출처 중 70세 이하에서는 자비의 비율이 많거나 자녀와 자비의 부담비율이 유사한 반면, 70세 이후에는 자녀의 부담비율이 자비

<표 1> 연구대상의 지역에 따른 연령분포

연령 %	70세미만		70세이상		총99명	
	김해 (명)	부산 (명)	김해 (명)	부산 (명)	김해 (명)	부산 (명)
	32	14	17	36	49	50

의 배를 상회하거나 배우자의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을 70세 이하(n=46)와 70세 이상(n=5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바지, 재킷1(단추1-2개), 재킷2(단추4개 이상), 점퍼에 대한 소유량과 각 의복의 맞음새 37문항을 도식화와 함께 제시하였다. 의복행동에 대한 문항은 정희용(1987), 이은희(1991), 김순구(1993), 추태귀(1995)를 참고하여 31문항, 의복구매에 대한 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3.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5일까지 부산과 김해의 노인여성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99부만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의복행동의 측정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분석

1. 노인여성의 의복행동

1) 노인여성의 의복 소유량

노인 여성의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은 정향숙(1993)의 연구에서는 블라우스+바지(39.8%)이며 여혜린·권영숙(2005)

의 연구에서는 재킷+슬랙스(51.26%), 점퍼+슬랙스(39.50%)로 나타났다. 예비 조사결과 원피스나 블라우스+스커트 착용보다는 재킷 또는 점퍼를 바지와 함께 착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의로는 바지, 상의로는 단추가 1-2개인 재킷1, 단추가 4개 이상인 재킷2, 점퍼의 소유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노인여성의 의복소유량은 <표 2>와 같다. 바지는 5-8벌이 24.2%, 8-12벌이 27.3%, 13벌이상이 31.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바지를 외출용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정장스타일의 바지이외에도 트레이닝바지와 몸빼(もんべ-몬베)바지 등 비교적 많은 양의 바지를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1(단추1-2개)은 3-5벌이 41.4%로 가장 많고, 2벌이하가 23.2%로 나타나 외출시에 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2(단추4개 이상)도 2벌이하가 41.0%로 가장 많고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도 16.2%로 나타나 상의 중에서 소유빈도가 가장 낮았다. 점퍼는 2벌이하가 23.0%, 3-5벌이 45.0%, 6-9벌이 29.0%로 나타나 점퍼는 상의 중 가장 많은 소유량을 나타내었다.

2) 노인여성의 의복행동 요인분석

<표 3>은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분석결과이다. 요인1은 외모에 대한 관심, 요인2는 의복에 대한

<표 2> 노인여성의 의복 소유량

단위: 명(%)

하의	5벌이하	5-8벌	9-12벌	13벌이상	없다
바지	17(17.2)	24(24.2)	27(27.3)	31(31.3)	0(00.0)
상의	2벌이하	3-5벌	6-9벌	10벌이상	없다
재킷단추1-2개)	23(23.2)	41(41.4)	14(14.1)	1(15.2)	6(6.1)
재킷2(단추4개이상)	41(41.4)	32(32.3)	7(7.1)	3(3.0)	16(16.2)
점퍼	23(23.2)	45(45.5)	18(18.2)	6(6.1)	1(1.0)

<표 3>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분석

FACTOR		FACTOR LODING
요인1 <외모에 대한 관심> (신뢰도 $\alpha = 0.84$)		
나의 신체적 결점을 감추어주는 옷이 좋다.		0.75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어서 나의 장점을 살리고 싶다.		0.81
입는 옷에 따라서 나의 외모가 달라 보인다.		0.82
외출할 때에 옷이 가장 신경 쓰인다.		0.59
옷을 입을 때 옷의 색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신경쓴다.		0.76
내 옷차림이 충후하고 단정하다고 생각 할 때가 많다.		0.40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6.26%	고유치(eigenvalue) = 3.58	
요인2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신뢰도 $\alpha = 0.73$)		
어떤 옷(좋은 옷, 마음에 드는 옷, 특별한 옷)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0.71
어떤 옷(좋은 옷, 마음에 드는 옷, 특별한 옷)을 입었을 때 남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사교적이 됨을 느낄수 있다		0.53
나는 옷을 마음에 들게 입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기분이 다르다.		0.49
나는 상점에서 옷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된다.		0.57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에는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갖고 외출한다		0.33
옷은 어느 정도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0.52
옷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진다.		0.65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3.45% / 29.71%(누적%)	고유치(eigenvalue) = 2.96	
요인3 <의복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alpha = 0.73$)		
옷이 많아서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잘 맞추어 입는다.		0.77
좋은 옷이 많아 외출할 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0.68
다른 친구보다 더 멋있게 옷을 입는다.		0.73
내게 잘 맞는 색의 옷이 많다.		0.78
옷을 살 때 나에게 어울린다면 손질이 힘들거나 물세탁이 되지 않는 것 이라도 구입한다.		0.34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3.22% / 42.93%(누적%)	고유치(eigenvalue) = 2.91	
요인4 <유행에 대한 관심> (신뢰도 $\alpha = 0.66$)		
새 옷을 마련할 때 유행을 고려한다.		0.69
TV나 잡지책을 보면서 유행하는 옷이 어떤 옷인지 관심을 가진다.		0.80
요즈음 유행하는 옷들을 대강 알고 있다.		0.54
모임이 많은 사람은 모임이 적은 사람에 비해 옷이 많이 필요하다.		0.54
변량(% of variance explained) = 10.08% / 53.01%(누적%)	고유치(eigenvalue) = 2.22	

심리적 의존성, 요인3은 의복에 대한 만족도, 요인4는 유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요인1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의복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1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요인2의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설문대상 대부분의 노인여성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짐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복에 대한 관심과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경원(2004)의 노인들의 의상에 대한 관심연구에서 외출이나 모임에는 신경을 쓰지만(34.0%) 평상시에는 의상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47.1%)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3) 의복행동 요인별 지역, 나이, 월평균지출액에 따른 차이

의복행동 요인별 지역, 나이, 월평균지출액에 따른 차이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역에서는 요인3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 요인4의 유행에 대한 관심, 나이에서는 요인4의 유행에 대한 관심, 월평균지출액에서는 요인4의 유행에 대한 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해의 노인여성이 부산의 노인여성에 비해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유행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대상이 김해의 노인여성은 모두 노인대학에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노인여성이지만 부산은 노인대학과 경노당의 노인여성이 함께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 보다는 사회적 활동여부가 의복에 대한 만족도와 유행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활동량이 줄어 유행변화에 따른 유행정보가 적어 유행 수용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성경원(2004)은 나이가 들수록 의상에 대한 관심도가 줍었을 때와 비슷한 노인은 45.3%, 관심이 덜해졌다는 노인이 39.6%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또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

(1) 의복구매횟수

의복구매횟수는 월평균지출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여성의 의복구매는 계절별 1~2회가 41.4%로 가장 많고, 1년에 1~2회도 37.4%로 나타났다. 또 거의 구입하지 않는다는 18.2%로 나타났다. 김해의 노인여성은 계절별 1~2회가 51.0%로 가장 많고, 다음은 1년에

<표 4> 지역, 나이, 월평균지출액과 의복행동의 요인별 차이

(n=99)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지역	김해 n=49	M	3.98	4.19	3.54	3.47
		SD	0.96	0.59	0.81	0.74
	부산 n=50	M	3.90	4.09	3.17	3.09
		SD	0.45	0.49	0.74	0.83
	F값		0.31	0.86	5.49*	5.72*
	70세이하 n=46	M	4.04	4.19	3.39	3.48
나이		SD	0.75	0.51	0.73	0.73
70세이상 n=53	M	3.85	4.10	3.32	3.10	
	SD	0.73	0.57	0.86	0.84	
F값		1.64	0.51	0.19	5.56*	
30만원이하 n=44	M	3.80	b	4.07	3.15	
	SD	0.74		0.57	0.77	
30~65만원 n=38	M	3.98	ab	4.20	3.52	
	SD	0.82		0.54	0.75	
월평균지출액	66만원이상 n=17	M	4.22	a	4.20	3.51
		SD	0.42		0.47	0.89
	F값		2.06		0.71	2.55
						3.45*

*P<0.05 · Duncan test : a>b

<표 5> 노인여성의 의복구매 횟수

횟수	구매	지 역		나 이		월평균지출액			전 체
		김해	부산	70세 이하	70세 이상	30만원 이하(a)	30~65 만원(b)	65만원 이상(b)	
거의 구입하지 않는다	6(12.2)	12(24.0)	7(15.2)	11(20.8)	13(29.5)	3(7.9)	2(18.2)	18(18.2)	
1년에 1~2회	18(36.7)	19(38.0)	20(43.5)	17(32.1)	19(43.2)	13(34.2)	5(37.4)	37(37.4)	
계절별 1~2회	25(51.0)	16(32.0)	16(34.8)	25(47.2)	11(25.0)	20(52.6)	10(41.4)	41(41.4)	
월1~2회	0(0.0)	3(6.3)	3(6.5)	0(0.0)	1(2.3)	2(5.3)	0(0.0)	3(3.0)	
전체	49(100.0)	50(100.0)	46(100.0)	53(100.0)	44(100.0)	38(100.0)	17(100.0)	99(100.0)	
χ^2	6.99		5.64		13.0*				

* $P < 0.05$

1~2회도 36.7%로 나타났다. 부산은 1년에 1~2가 38.0%로 가장 많으며 계절별 1~2회가 32.0%로 나타나 김해 노인여성이 의복구매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구매횟수를 살펴보면 70세 이하는 1년1~2회가 43.5%로 가장 많고 71세 이상은 계절별1~2회가 47.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적을수록 의복구매횟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또 월평균지출액에 따른 의복구매횟수는 30만원이하는 1년에1~2회가 43.2%, 계절별1~2회가 25.0%, 30-65만원에서는 계절별1~2회가 52.6%, 1년에1~2회가 34.2%, 66만원이상은 계절별1~2회가 41.4%, 1년에1~2회가 37.4%로 나타나 대체로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의복구매횟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여성의 의복구매횟수는 지역, 나이 보다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구매동기

노인여성들이 의복구매동기는 <표 6>과 같다. 의복구매동기는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해는 명절·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가 32.6%, 계절이 변화할

때 30.6%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계절이 변화할 때가 44.0%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알 수 있다. 나이에서는 70세 이하와 70세 이상 모두 계절이 변화할 때가 37.0%와 37.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액에 따라서는 30만원이하와 30-65만원은 계절이 변화할 때, 명절·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매장에 진열된 옷이 마음에 들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66만원이 상은 명절·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가 35.3%, 계절이 변화할 때가 29.4%, 매장에 진열된 옷이 마음에 들어서 가 11.8% 순으로 나타났다.

(3) 의복구매 시 선택기준

노인 여성의 의복구매 시 선택기준은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 월평균지출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가격→색상이나 무늬→사이즈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액에서는 30만원이하는 가격→사이즈→색상이나 무늬, 30-65만원은 가격→색상이나 무늬→디자인이나 스타일, 65만원이상은 가격=디자인이나 스타일→색상이나 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격은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 시 가장 큰 선택 기준임을

<표 6>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 동기

구매동기	지 역		나 이		월평균지출액				전체
	김해	부산	70세이하	70세이상	30만원 이하	30~65만원	65만원 이상		
명절, 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때	16(32.7)	9(18.0)	15(32.6)	10(18.9)	10(22.7)	9(23.7)	6(35.3)	25(25.3)	
계절이 변화할때	15(30.6)	22(44.0)	17(37.0)	20(37.7)	18(40.9)	14(36.8)	5(29.4)	37(37.4)	
매장에 진열된 옷이 마음에 들어서	9(18.4)	4(8.0)	5(10.9)	8(15.1)	6(13.6)	5(13.2)	2(11.8)	13(13.1)	
할인판매광고를 보고 싸게 사려고	5(10.2)	0(0.0)	2(4.3)	3(5.7)	0(0.0)	3(7.9)	2(11.8)	5(5.1)	
가진 옷이 맞지 않거나 낡아서	2(4.1)	3(6.0)	1(2.2)	4(7.5)	3(6.8)	1(2.6)	1(5.9)	5(5.1)	
기타	2(4.1)	12(24.0)	6(13.0)	8(15.1)	7(16.0)	6(15.8)	1(5.9)	14(14.0)	
전체	49(100.0)	50(100.0)	46(100.0)	53(100.0)	44(100.0)	38(100.0)	17(100.0)	99(100.0)	
χ^2	22.40*		6.81		16.88				

* $P < 0.05$

<표 7>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 시 선택기준(다중응답)

명(%)

옷의 선택기준	지 역		나 이		월평균지출액		
	김해	부산	70세 이하	70세 이상	30만원 이하	30~65만원	65만원 이상
가격	38(77.6)	35(70.0)	32(69.6)	41(77.4)	36(81.8)	27(71.1)	10(58.8)
사이즈	27(55.1)	30(60.0)	22(47.8)	35(66.0)	32(72.7)	17(44.7)	8(47.1)
옷감	8(16.3)	16(32.0)	11(23.9)	13(24.5)	9(20.5)	11(28.9)	4(23.5)
세탁 및 관리성	3(6.1)	1(2.0)	3(6.5)	1(1.9)	2(4.5)	1(2.6)	1(5.9)
디자인이나 스타일	23(46.9)	23(46.0)	23(50.0)	23(43.4)	18(40.9)	18(47.4)	10(58.8)
색상이나 무늬	34(69.4)	32(64.0)	34(73.9)	32(60.4)	28(63.6)	23(60.5)	15(88.2)
바느질 상태(품질)	11(22.4)	6(12.0)	11(23.9)	6(11.3)	4(9.1)	10(26.3)	3(17.6)
판매원, 동반자의 권유	3(6.1)	3(6.0)	2(4.3)	4(7.5)	1(2.3)	5(13.2)	0(0.0)
χ^2	19.74*		9.36		27.35*		

*P<0.05

알 수 있다.

(4) 의복구매 시 불만사항

의복구매 시 불만사항은 지역, 나이, 월평균지출액에 관계없이 가격이 전체43.4%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나 노인여성의 약한 경제력을 알 수 있었다. 사이즈는 25.3%로 두 번째로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층의 체형이 다른 연령층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다양한 신체변화가 일어나므로 다양한 치수의 의복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유경숙, 2000; 금혜령, 1999; 이승희, 1998). 남윤자와 1인(1998) 50대, 60대의 장년기 이후에 보다 더 고조되는 불만이라고 하였다(이승희, 1998).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특별가 공급이나 다양한 의복의 노인 할인 혜택, 일정가격의 한도에서 노인복지지원금 등으로 지원함으로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남윤자와 1인(1998)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수준은 낮아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생활에 대한 불만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5) 의복 구매장소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장소는 지역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해가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42.9%, 백화점 24.5% 순으로 나타났고, 부산은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40.0%, 백화점 24.0%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길거리나 보따리 장수가 1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70세 이하는 백화점과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이 모두 30.4%로 나타나 70세 이상의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50.9%라는 차이를 보이며 나이가 젊을수록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지출액에 따라서는 30만원이하는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47.7%, 30~65만원은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42.1%, 65만원이상은 백화점 41.2%이 가장 많

<표 8>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 시 불만사항

명 (%)

불만사항	지 역		나 이		월평균지출액			전체
	김해	부산	70세 이하	70세 이상	30만원 이하 (a)	30~65만원 (ab)	65만원 이상 (b)	
가격	22(44.9)	21(42.0)	16(34.8)	27(50.9)	21(47.7)	14(36.8)	8(47.1)	43(43.4)
사이즈	13(26.5)	12(24.0)	15(32.6)	10(18.9)	11(25.0)	7(18.4)	7(41.2)	25(25.3)
옷감	1(2.0)	1(2.0)	0(0.0)	2(3.8)	0(0.0)	2(5.3)	0(0.0)	2(2.0)
디자인이나 스타일	5(10.2)	4(8.0)	4(8.7)	5(9.4)	5(11.4)	4(10.5)	0(0.0)	9(9.1)
색상이나 무늬	3(6.1)	6(12.0)	5(10.9)	4(7.5)	4(9.1)	4(10.5)	1(5.9)	9(9.1)
바느질상태(품질)	4(8.2)	1(2.0)	4(8.7)	1(1.9)	2(4.5)	2(5.3)	1(5.9)	5(5.1)
불만없다	1(2.0)	5(10.0)	2(4.3)	4(7.5)	1(16.7)	5(13.2)	0(0.0)	6(6.1)
전체	49(100.0)	50(100.0)	46(100.0)	53(100.0)	44(100.0)	38(100.0)	17(100.0)	99(100.0)
χ^2	5.63		8.04		13.67			

<표 9> 노인여성의 의복 구매장소

명 (%)

구매장소	지 역		나 이		월평균지출액			전 체
	김해	부산	70세 이하	70세 이상	30만원 이하	30~65만원	65만원 이상	
백화점	12(24.5)	12(24.0)	14(30.4)	10(18.9)	8(18.2)	9(23.7)	7(41.2)	24(24.2)
기성복대리점이나 직매점	8(16.3)	3(6.0)	8(17.4)	3(5.7)	4(9.1)	5(13.2)	2(11.8)	11(11.1)
상성활인매장	4(8.2)	1(2.0)	4(8.7)	1(1.9)	2(4.5)	3(7.9)	0(0.0)	5(5.1)
양장점이나 맞춤점	3(6.1)	2(4.0)	4(8.7)	1(1.9)	0(0.0)	3(7.9)	2(11.8)	5(5.1)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	21(42.9)	20(40.0)	14(30.4)	27(50.9)	21(47.7)	16(42.1)	4(23.5)	41(41.4)
길거리나 보따리장수	0(0.0)	8(16.0)	0(0.0)	8(15.1)	7(15.9)	0(0.0)	1(5.9)	8(8.1)
기타	1(2.0)	4(8.0)	2(4.4)	3(5.7)	2(4.6)	2(5.3)	1(5.9)	5(5.0)
전체	49(100.0)	50(100.0)	46(100.0)	53(100.0)	44(100.0)	38(100.0)	17(100.0)	99(100.0)
χ^2	17.29*		23.28**		27.61			

*P<0.05 **P<0.01

이 나타났다. 백화점 이용률을 살펴보면 30만원이하는 18.2%, 30~65만원은 23.7%, 65만원이상은 41.2%로 나타나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백화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매시장 및 대형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이며 소득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혜린(2005)연구에서 백화점이 58.33%, 금혜령(1999)연구에서 백화점이 48.51%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6) 전문적인 노인매장의 필요성

<표 10>은 전문적인 노인매장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 전문매장이 필요하다가 76.8%로 나타나 노인전문매장의 필요성이 절실했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허갑선(1993)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부산의 70.0% 보다는 김해가 83.7% 높게 나타났고, 70세이상의 71.7% 보다는 70세 이하가 82.6%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액에서는 30만원이하는 68.2%, 30~65만원은 78.9%, 65만원이상은

94.1%로 나타나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노인 전문 매장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었다. 이는 <표 9>에서 돈이 많을수록 백화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분석 해보면 상품이 다양한 백화점에서의 구매도 노인 여성에게는 가격 등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맞춘 상품을 적절한 가격과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할 수 있는 노인전문매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일본에서 1990년대 상권을 재편한 편의점·대형 양판점의 기세가 꺾이고, 동네 상점인 구멍가게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깊어지면서 가까운 상점에서 소량의 장을 보는 여성과 노인 소(小)가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05.07.07). 이처럼 노인전문매장은 대도시의 위주의 대형화 보다는 작은 규모로 노인들 가까이에 생겨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전문적인 노인매장의 필요성

명(%)

노인 전문매장	지역		연령		쓰는 돈			전체
	김해	부산	70세 이하	70세 이상	30만원 이하	30~65만원	65만원 이상	
필요하다.	41(83.7)	35(70.0)	38(82.6)	38(71.7)	30(68.2)	30(78.9)	16(94.1)	76(76.8)
필요하지 않다.	6(12.2)	4(8.0)	4(8.7)	6(11.3)	5(11.4)	4(10.5)	1(5.9)	10(10.1)
잘 모르겠다.	2(4.1)	11(22.0)	4(8.7)	9(17.0)	9(20.5)	4(10.5)	0(0.0)	13(13.1)
전체	49(100.0)	50(100.0)	46(100.0)	53(100.0)	44(100.0)	38(100.0)	17(100.0)	99(100.0)
χ^2	7.10*		1.84		5.71			

*P<0.05

<표 11> 바지의 맞음새

(n=99) 명(%)

부위	나이		착용감	← 많이 조임 →	나이	
	70세이하(n=46)	70세이상(n=53)			70세이하(n=46)	70세이상(n=53)
허리여유	1(2.2)	1(1.9)	← 많이 조임 →	힙여유	0(00.0)	0(00.0)
	4(8.7)	5(9.4)	← 조금 조임 →		3(6.5)	2(3.8)
	27(58.7)	34(64.2)	← 알맞다 →		33(71.7)	38(71.7)
	14(30.4)	11(20.8)	← 조금 헐렁함→		10(21.7)	12(22.6)
	0(00.0)	2(3.8)	←많이 헐렁함→		0(00.0)	1(1.9)
X ²	2.79			X ²	1.25	
밑위길이	1(2.2)	1(1.9)	← 많이 짧다 →	바지길이	0(00.0)	0(00.0)
	3(6.5)	8(15.1)	← 조금 짧다 →		1(2.2)	0(00.0)
	31(67.4)	37(69.8)	← 적당하다 →		22(47.8)	29(54.7)
	11(23.9)	7(13.2)	← 조금 길다 →		17(37.0)	16(30.2)
	0(00.0)	0(00.0)	← 많이 길다 →		6(13.0)	8(15.1)
X ²	3.21			X ²	1.79	
허벅지너비	0(00.0)	0(00.0)	← 많이 좁다 →	부리너비	0(00.0)	0(00.0)
	3(6.5)	4(7.5)	← 조금 좁다 →		1(2.2)	0(00.0)
	32(69.6)	40(75.5)	← 적당하다 →		41(89.1)	46(86.8)
	11(23.9)	7(13.2)	← 조금 넓다 →		4(8.7)	7(13.2)
	0(00.0)	2(3.8)	← 많이 넓다 →		0(00.0)	0(00.0)
X ²	3.44			X ²	1.61	

2. 노인여성의 기성복 맞음새

노인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기성복의 맞음새 평가방법은 '많이 조인다.(너무 짧다, 너무 좁다)'는 1점, '조금 조인다.(조금 짧다, 조금 좁다)'는 2점, '알맞다(적당하다)'는 3점, '조금 헐렁하다(조금 길다, 조금 넓다)'는 4점, '많이 헐렁하다(너무 길다, 너무 넓다)'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3점 이하는 짧거나 좁고 조여서 불편한 것이고 3점은 알맞은 맞음새를 나타내며 3점 이상은 길거나 넓고 헐렁하여 불편함을 나타낸다.

1) 바지의 맞음새

바지의 맞음새는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는 부위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알맞거나 헐렁하고 길고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혜린(2005)의 연구에서 노인여성의 58.24%가 바지길이를 줄인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노인여성은 바지를 착용 시 허리의 여유와 밑위길이의 여유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허리와 밑위길이의 여유를 넉넉히 입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 부위의 여유를 만족스럽게 입다보니 힙이나 다른 부위의 여유는 헐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혜린(2005)의 연구에서 노인여성의 42.24%가 허리와 배 부위를 늘린다는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2) 재킷1의 맞음새

재킷1은 소유량, 허리둘레, 소매통, 힙여유에서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재킷길이, 어깨길이, 소매통, 겨드랑이선 위치, 소매부리를 제외한 부위의 맞음새에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하의 노인여성은 70세 이상의 노인여성보다는 적당히 알맞다고 인식하는 반면 70세 이상의 노인여성은 길고 크며 헐렁하다고 인식하였다. 소매길이는 조금길거나 길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70세 이하 45.7%, 70세 이상 28.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혜린(2005)의 연구에서 노인여성의 47.89%가 소매길이를 줄인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킷1은 허리여유, 가슴여유, 힙여유, 소매길이에서 70세 이상 여성들이 70세 이하 여성들에 비해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2) 재킷2의 맞음새

재킷2는 나이에 따라 착용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부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2의 소유량은 41.4%가 2벌 이하, 가지고 있지 않다가 16.2%로 나타났다. 재킷2는 재킷1에 비해 나이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재킷2의 디자인은 어깨길이와 가슴부위에 맞게 입으

<표 12> 재킷1의 맞음새

명(%)

부위	나이		착용감		부위	나이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소유량	11(23.9)	12(22.6)	↔2벌이하	많이조임→	가슴여유	1(2.2)	1(1.9)
	20(48.8)	21(51.2)	↔3~5벌	조금조임→		4(8.7)	4(7.5)
	4(8.7)	10(18.9)	↔6~9벌	알맞다 →		32(50.8)	31(58.5)
	11(23.9)	4(15.2)	↔10벌이상	조금헐렁함→		9(19.6)	10(18.9)
	0(00.0)	6(11.3)	↔해당사항없음	많이헐렁함→		0(00.0)	1(1.9)
χ^2	11.47*		해당사항없음 →		χ^2	0(00.0)	6(11.3)
						6.61	
허리 여유	0(00.0)	0(00.0)	← 많이 조임	→	힙여유	0(00.0)	0(00.0)
	5(10.9)	2(3.8)	← 조금 조임	→		9(19.6)	2(3.8)
	29(63.0)	38(71.7)	← 알맞다	→		29(63.0)	35(66.0)
	12(26.1)	7(13.2)	← 조금 헐렁함	→		6(13.0)	10(18.9)
	0(00.0)	0(00.0)	← 많이 헐렁함	→		2(4.3)	0(00.0)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χ^2	9.36*				χ^2	13.59**	
어깨길이	1(2.2)	1(2.2)	← 너무 짧다	→	소매길이	0(00.0)	1(1.9)
	3(6.5)	4(7.5)	← 조금 짧다	→		4(8.7)	3(5.7)
	36(78.3)	35(66.0)	↔ 적당하다	→		21(45.7)	28(52.8)
	5(10.9)	6(11.3)	← 조금 길다	→		17(37.0)	14(26.4)
	1(2.2)	1(1.9)	← 너무 길다	→		4(8.7)	1(1.9)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χ^2	5.78				χ^2	9.79	
재킷길이	0(00.0)	1(1.9)	← 많이 짧다 / 당긴다	→	겨드랑이 선위치	1(2.2)	2(3.8)
	5(10.9)	4(7.5)	← 조금 짧다 / 당긴다	→		6(13.0)	5(9.4)
	32(69.6)	34(64.2)	↔ 적당하다	→		34(73.9)	34(64.2)
	9(19.6)	8(15.1)	← 조금 길다 / 처진다	→		5(10.9)	5(9.4)
	0(00.0)	0(00.0)	← 많이 길다 / 처진다	→		0(00.0)	1(1.9)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χ^2	6.77				χ^2	6.96	
소매통	1(2.2)	1(1.9)	← 너무 좁다	→	소매부리	0(00.0)	1(1.9)
	4(8.7)	3(5.7)	← 조금 좁다	→		3(6.5)	1(1.9)
	39(84.8)	35(66.0)	↔ 적당하다	→		38(82.6)	42(79.2)
	2(4.3)	8(15.1)	← 조금 넓다	→		4(8.7)	3(5.7)
	0(00.0)	0(00.0)	← 너무 넓다	→		1(2.2)	0(00.0)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χ^2	9.51*				χ^2	8.89	

*P<0.05 **P<0.01

면 허리부위와 힙 부위는 여유가 많고, 겨드랑이가 처져서 불편하여 이미 구입한 재킷도 잘 착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 이 디자인의 재킷을 입으면 행동이 둔하고 처져 보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대부분

이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재킷을 디자인할 때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소매길이, 겨드랑이선 위치를 제외하고는 70세 이하의 여성들이 재킷2의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13> 재킷2의 맞음새

명(%)

부위	나이		착용감	부위	나이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소유량	22(47.8)	19(35.8)	←2별이하	가슴여유	1(2.2)	0(00.0)	
	13(28.3)	19(35.8)	←3~5별		4(8.7)	2(3.8)	
	5(10.9)	2(3.8)	←6~9별		29(63.0)	30(56.6)	
	2(4.3)	1(1.9)	←10별이상		8(17.4)	10(18.9)	
	4(8.7)	12(22.6)	←해당없음		0(00.0)	0(00.0)	
χ^2	6.50		해당사항없음 →		χ^2	4.70	
허리여유	0(00.0)	0(00.0)	← 많이 조임 →	힙여유	0(00.0)	0(00.0)	
	1(2.2)	3(5.7)	← 조금 조임 →		3(6.5)	2(3.8)	
	30(65.2)	30(56.6)	← 알맞다 →		32(69.6)	32(60.4)	
	11(23.9)	9(17.0)	← 조금 헐렁함 →		7(15.2)	8(15.1)	
	0(00.0)	0(00.0)	← 많이 헐렁함 →		0(00.0)	0(00.0)	
	4(8.7)	11(20.8)	← 해당사항없음 →		4(4.0)	11(11.1)	
χ^2	3.99				χ^2	3.05	
어깨길이	0(00.0)	0(00.0)	← 너무 짧다 →	소매길이	0(00.0)	0(00.0)	
	2(4.3)	1(1.9)	← 조금 짧다 →		1(2.2)	0(00.0)	
	35(76.1)	36(67.9)	← 적당하다 →		26(56.5)	35(66.0)	
	5(10.9)	5(9.4)	← 조금 길다 →		12(26.1)	7(13.2)	
	0(00.0)	0(00.0)	← 너무 길다 →		3(6.5)	0(00.0)	
	4(4.0)	11(11.1)	← 해당사항없음 →		4(4.0)	11(11.1)	
χ^2	3.14				χ^2	9.46	
재킷길이	0(00.0)	0(00.0)	← 많이 짧다 / 당긴다 →	겨드랑이선위치	1(2.2)	0(00.0)	
	3(6.5)	2(3.8)	← 조금 짧다 / 당긴다 →		5(10.9)	1(1.9)	
	33(71.7)	32(60.4)	← 적당하다 →		29(63.0)	36(67.9)	
	5(10.9)	8(15.1)	← 조금 길다 / 처진다 →		6(13.0)	5(9.4)	
	1(2.2)	0(00.0)	← 많이 길다 / 처진다 →		1(2.2)	0(00.0)	
	4(4.0)	11(11.1)	← 해당사항없음 →		4(4.0)	11(11.1)	
χ^2	4.70				χ^2	8.33	
소매통	0(00.0)	0(00.0)	← 너무 좁다 →	소매부리	0(00.0)	0(00.0)	
	1(2.2)	0(00.0)	← 조금 좁다 →		1(2.2)	0(00.0)	
	37(80.4)	34(64.2)	← 적당하다 →		35(76.1)	40(75.5)	
	3(6.5)	8(15.1)	← 조금 넓다 →		5(10.9)	2(3.8)	
	1(2.2)	0(00.0)	← 너무 넓다 →		1(2.2)	0(00.0)	
	4(4.0)	11(11.1)	← 해당사항없음 →		4(4.0)	11(11.1)	
χ^2	7.21				χ^2	6.42	

3) 점퍼의 맞음새

<표 14>은 점퍼의 맞음새를 나타낸 것이다. 나이에 따라 허리여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점퍼는 재킷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고 헐렁하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허리여유는 많고 소매길이가 길게 인식하였다. 점퍼는

일상복은 물론이고 외출복으로도 가장 많이 착용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다른 의복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였으며 많이 입는 만큼 불만족도도 높았고 요구 조건이 많았다. 소매, 허리나 힙의 고무 밴드 부분이 많이 조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 부위의 여유를 넉넉하게 구입하다보면 겨드랑이선이 많이 치지고 배부위에 여

<표 14> 점퍼의 맞음새

명(%)

부위	나이		착용감		부위	나이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70세이하 (n=46)	70세이상 (n=53)
소유량	10(21.7)	13(24.5)	↔2벌이하	많이조임→	가슴여유	0(00.0)	0(00.0)
	19(41.3)	26(49.1)	↔3~5벌	조금조임→		2(4.3)	0(00.0)
	12(26.1)	6(11.3)	↔6~9벌	알맞다 →		28(60.9)	29(54.7)
	5(10.9)	1(1.9)	↔10벌이상	조금헐렁함→		13(28.3)	16(30.2)
	0(00.0)	6(11.3)	↔해당없음	많이헐렁함→		3(6.5)	2(3.8)
	해당사항없음→					0(00.0)	6(11.3)
X ²	12.72*				X ²	8.07	
허리여유	0(00.0)	0(00.0)	← 많이 조임	→	힙여유	2(4.3)	1(1.9)
	4(8.7)	0(00.0)	← 조금 조임	→		4(8.7)	5(9.4)
	23(50.0)	34(64.2)	← 알맞다	→		26(56.5)	33(62.3)
	16(34.8)	11(20.8)	← 조금 헐렁함	→		13(28.3)	7(13.2)
	3(6.5)	2(3.8)	← 많이 헐렁함	→		1(2.2)	1(2.2)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X ²	12.82*				X ²	8.62	
어깨길이	0(00.0)	0(00.0)	← 너무 짧다	→	소매길이	0(00.0)	0(00.0)
	2(6.5)	0(00.0)	← 조금 짧다	→		1(2.2)	0(00.0)
	32(69.6)	35(66.0)	← 적당하다	→		27(58.7)	35(66.0)
	10(21.7)	11(20.8)	← 조금 길다	→		14(30.4)	10(18.9)
	1(2.2)	1(1.9)	← 너무 길다	→		4(8.7)	2(3.8)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X ²	8.73				X ²	8.92	
점퍼길이	1(2.2)	0(00.0)	← 많이 짧다 / 당긴다	→	겨드랑이선위치	0(00.0)	0(00.0)
	2(4.3)	1(1.9)	← 조금 짧다 / 당긴다	→		4(8.7)	1(1.9)
	30(65.2)	36(67.9)	← 적당하다	→		32(69.6)	34(64.2)
	10(21.7)	8(15.1)	← 조금 길다 / 처진다	→		9(19.6)	10(18.9)
	3(6.5)	2(3.8)	← 많이 길다 / 처진다	→		1(2.2)	2(3.8)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X ²	7.85				X ²	7.79	
소매통	0(00.0)	0(00.0)	← 너무 좁다	→	소매부리	0(00.0)	0(00.0)
	3(6.5)	1(1.9)	← 조금 좁다	→		4(8.7)	3(5.7)
	32(69.6)	33(62.3)	← 적당하다	→		36(78.3)	38(71.7)
	9(19.6)	11(20.8)	← 조금 넓다	→		4(8.7)	5(9.4)
	2(4.3)	2(3.8)	← 너무 넓다	→		2(4.3)	1(1.9)
	0(00.0)	6(11.3)	← 해당사항없음	→		0(00.0)	6(11.3)
X ²	6.75				X ²	6.18	

*P<0.05,

유도 많아져 불룩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노인 여성에게 맞는 색상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IV. 결론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기성복에 대한 착용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행동

1) 노인여성의 각 의복 소유량은 바지는 13벌이상, 재킷1(단추1-2개)은 3-5벌, 재킷 2(단추4개 이상)도 2벌이하, 점퍼는 3-5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의는 점퍼의 소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노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1은 외모에 대한 관심, 요인2는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요인3은 의복에 대한 만족도, 요인4는 유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났다. 김해의 노인여성이 부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유행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유행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 구매 횟수는 김해의 노인여성이 부산보다 구매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노인여성이 70세 이하보다 구매횟수가 많게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의복 구매 횟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복 구매 동기는 김해지역이 명절·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부산은 계절이 변화할 때 의복구매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에서는 연령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절이 변화할 때가 의복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지출액에 따라서는 30만원이하와 30-65만원은 계절이 변화할 때, 66만원이상은 명절·집안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의복 구매 시 선택기준은 나이가 적을수록 색상이나 무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가격은 의복 구입 시 가장 큰 선택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시 불만사항은 가격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며 둘째는 사이즈로 나타났다.

6) 의복 구매 장소는 부산이 도매시장 및 대형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적고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적인 노인매장은 76.8%가 노인전문매장이 필요하다로 나타났으며 부산보다는 김해, 70세이상보다는 70세이하, 월평균지출액이 많을수록 노인 전문 매장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기성복착용감

바지는 허리와 허벅지의 여유가 많고, 바지길이, 밑위길이는 길어서 불편하게 느꼈다. 재킷1은 나이가 많을수

록 재킷길이, 어깨길이, 소매통, 겨드랑이선 위치, 소매부리를 제외한 부위의 맞음새에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재킷1은 허리여유, 가슴여유, 힙여유, 소매길이에서 70세 이상 여성들이 70세 이하 여성들에 비해 착용감이 높게 나타났다. 재킷2는 재킷1에 비해 나이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으며, 소매길이, 겨드랑이선 위치를 제외하고는 70세 이하의 여성들이 재킷2의 착용감을 높게 평가하였다. 점퍼는 재킷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고 헐렁하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허리여유는 많고 소매길이가 길게 인식하였다.

주제어 : 노인여성, 의복구매행동, 의복행동, 기성복, 맞음새.

참 고 문 헌

- 강윤자, 김인숙(1998). 한국 노인여성들의 의복구매행동과 의복불만, 복식문화연구 6(4), 162-174.
- 김영애(1991).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구(1993).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미(1994).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논문집, 32.
- 김진구(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1)
- 금혜령(1999). 노년기 여성의 의복관여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 유희숙(1997).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II), 복식, 34. 6-17 남윤자, 김인숙(1998). 한국 노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과 의복불만, 복식문화연구, 6(4), 162-174.
- 배현숙(1999). 노년층 여성의 의복 자아이미지와 의복구매 유형 및 선호디자인과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주, 강은미(2005). 실버패션마켓의 의복충동구매행동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871-882.
- 서미아, 이선희(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 성경원(2004). 장노년 패션에 대한 이미지 조사, KARP 제8차 포럼.
- 이승희, 임숙자(1998). 국내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및 불만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 110-120.

- 이민정(1996). 노년청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1991). 의류 Silver Market 개발을 위한 중·노년기 여성의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2000). 노인의 성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및 구매에 관한 연구, 복식 50(7), pp.155-163.
- 여혜린, 권영숙(2005). 노년기 의생활 실태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9 (1), 177-188. 추태귀(1995). 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진미(1997). 50-60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다양성과 의복구매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병숙(1996). 노년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점포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 허갑섬(1993). 韓國老年期女性の衣生活實態調査研究, 衣生活研究, 20(4), 48-53.
- Lambert, Z. V.(1979). An investigation of older consumer's unmet needs and wants at the retail level, Journal of Retailing, 55(4), 35-57.
- Burt & Gabbott(1995). The elderly consumer and non-food purchase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2), 43-58.
- <http://silver.changwon.go.kr>
- <http://www.karpkr.org>
- <http://www.komericanjournal.com>
- <http://www.unisilver.co.kr>
- 통계청 자료.

(2006. 06. 30 접수; 2006. 10. 24 채택)